

학교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현황

신선미¹ · 김혜순² · 홍민순³ · 이희우⁴

문경대학¹, 삼정초등학교², 여의도고등학교³,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⁴

The Job Status of Health Teacher, School Nurse, during Epidemic Outbreak of Influenza H1N1 in School

Sun Mi Shin¹ · Hye Soon Kim² · Min Soon Hong³ · Hee Woo Lee⁴

¹Munkyeong College, ²Samjung Elementary School, ³Youido High School, ⁴Seoul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Institute

ABSTRACT

Purpose: To identify the need to reform in the crisis response of Health Teacher, School Nurse, in elementary school during epidemic outbreak of influenza H1N1.

Methods: 139 elementary health teachers, school nurse, in seoul elementary school responded in the questionnaire, and we analysed by using frequency and percent, t-test, and paired t-test.

Results: The Job status became 121% more 'during influenza H1N1 (flu) outbreak' than Job status of 'before outbreak'. The proportion of the flu-related duty among their daily workload was up to 77.5%. The administration-related workload of the flu-related duty was 30.8%. and students' health assessment including temperature measurement 18.7%. Furthermore, an impediment of usual daily work due to an increased flu-related workload was 95.7%, and no alternative plan such as disposition of assistant labor force was 86.1%. Especially, an impediment of health education was 61.0%, so the major concern was the loss of health education. We compared average scores (a five-point Likert scale) of health teachers' work motivation, exhaustion, work relationship and Job management of 'during' with 'before' flu-outbreak. The difference range of 'during' minus 'before' work motivation score was from -0.4 points to -0.9; work exhaustion range from 1.8 to 1.9; the difficulty of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chool personnel, parents of students, and health teachers from 1.4 points to 1.3 points; and the consideration of changing Job, taking time off from the Job and retirement from 1.4 to 1.6 points.

Conclusion: The health teachers had a heavy workload due to flu-outbreak. They also experienced the impediment of usual work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was a shortage of alternative plan such as disposition of an assistant labor force. Under their Job status like this, the health teachers' motivation score was decreased and work exhaustion was increased. Furthermore, they had a lot of relation difficulty with students and school personnel. Therefore, we suggested that in contrast to the usual Job status, there is a need to have a prepared response during school crisis like flu-outbreak such as improved respons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simplification or dispers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temporary call-center for simple inquiries or advices.

Key Words: Influenza H1N1, School, Health teacher

서론

사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 (이하 신종플루)의 유행은 2009년 3월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북미와 전세계로 확산되

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같은 해 6월 11일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전염병 경보수준을 대유행(pandemic)으로 공표하였다(정희진, 2009; 이우주, 2009 a). 이후 2009년 9월 27일까지 전세계 감염자수는 340,000명 이상이며,

Corresponding author: Hee Woo Lee, Seoul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Institute, 100-177 Hoehyun 1-dong, Jung-gu, Seoul 100-873, Korea.
Tel: 82-2-311-1282, Fax: 82-2-311-1236, E-mail: healthteam1@sen.go.kr

2010년 5월 31일 접수, 2010년 6월 18일 채택

사망자는 4,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15일 태국여행을 다녀온 50대 남성이 신종플루감염으로 사망한데 이어 하루 만에 해외 여행 경험이 없는 60대 여성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사망하였고(이만우와 허중호, 2009), 이후 2009년 11월 18일까지 국내에서 11명의 사망환자(정희진, 2009), 그리고 2010년 11월 18일까지 82명이었다(질병관리본부, 2010). 특히 학교를 비롯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감염은 급증하여 2009년 10월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4만1,52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서울신문, 2009).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체 감염자의 60~70%가 5~30세로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주로 발병하고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은 1~2%에 불과(김우주, 2009 b)한 역학적 특성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신종플루가 전국민을 위협하는 건강문제로 대두되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 4월 28일에 ‘주의’단계, 7월 21일에는 경계단계, 11월 3일에서부터 12월 11일의 기간 동안은 심각 단계를 선포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이 기간 동안 각종 매스미디어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신종플루의 위험을 국민에게 널리 알렸다(세계여행신문, 2009)

한편,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은 매우 커졌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하였다. 각 학교는 개인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의 손씻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예절을 교육하였다. 교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함과 함께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플루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발견되면 등교중지 조치를 취함과 함께 추가확산이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휴업이나 휴교”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신종플루관련 학교 업무에 대해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대응의 기획과 조정 뿐 아니라, 체온 측정, 각종 가정통신 발송, 학생과 학부모 상담 및 문의, 전화 응대 등의 직접 및 간접 간호업무, 그리고 일일 환자현황 파악, 교육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의 평가 및 교류업무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보건교사 직무현황은 아직까지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악을 통해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건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위기관리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직무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건교사가 지각하는 신종플루 확산의 정점 및 전후 10일간의 업무량, 업무내용, 하루업무 중 신종플루의 업무 비율, 그리고 일상 업무의 지장 및 대안여부를 파악한다.
- 신종플루 확산전과 확산후의 보건교사 직무동기, 직무소진, 직무관계 및 직업관리요인의 변화를 탐색한다.
-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여러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점 확인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신종플루 대유행시기의 보건교사의 직무를 알기 위한 서술적 설문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시에 초등학교 보건교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300개 초등학교의 300인의 보건교사 중 자원자 표출(Volunteer sampling) 방식에 의해 본 조사에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139개 초등학교의 139명의 보건교사로, 이들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1,215개교 중 12.3%에 해당된다.

3. 연구도구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 도구를 이용한 것이다. 설문도구는 본 연구자들에 협의에 의해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에 걸쳐 만들어 졌다. 이때 신종플루 위기 대응방식에서의 문제점은 보건교사 2인의 경험나누기를 기반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한 7문항, 성별, 연령, 보건교사 경력, 학력, 학생규모, 학급규모, 근무지역의 경제수준을 질문하였다. 이때 근무지역의 경제수준은

보건교사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역의 경제수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재정자립도 역시 각 구내 동간의 편차로 인해 오히려 경제수준의 변별을 희석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신종플루로 인한 직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종플루 확산의 정점(peak)을 알기위한 1문항(신종플루로 인해 교내 건강위기가 가장 극심한 때는 어느 달 몇 번째 주입니까?), 정점으로부터 전후 10일간의 업무량 1문항(신종플루로 건강위기가 가장 극심할 때의 전후 10일간의 업무량을 평상시와 비교한다면 몇 % 더 증가하였습니까?), 신종플루 업무의 비중 1문항(하루업무를 100%로 볼때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는 몇 %입니까?)과 신종플루 업무의 내용별 비중 1문항(신종플루를 단일 업무로 보았을때 문의, 평가, 권고, 도움, 추후관리, 행정처리, 교육의 업무에 대한 비중을 적어주십시오.), 평상시 업무의 지장과 대안여부 4문항(신종플루로 인해 평상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지장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종플루 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 1문항(신종플루 대응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표시해 주세요)이었다.

셋째, 신종플루로 인한 보건교사의 동기, 소진, 직무관계, 직업관리 요인을 알기위해 직무동기 3문항(직무보람, 직업적 자긍심), 직무소진 3문항(직무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부담), 직무관계 3문항(학생, 교직원, 학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및 직업 관리 요인 3문항(휴직, 이직, 퇴직 고려)을 질문(다음의 내용에 대해 신종플루 확산전과 확산이후로 각각 구분하여 매우 적음 1점, 적음 2점, 보통 3점, 많음 4점, 매우 많음 5점으로 답변해 주십시오)하였다.

4. 자료수집

개발된 설문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보건교사 대표를 통해 보건교사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된 300인의 보건교사 모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때 연구의 목적은 발송 이메일 및 설문지면을 통해 충실히 설명하였고, 연구에 동의 시에만 직접 서명 후 설문에 응답토록 하였다.

이에 139명의 보건교사가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46.3%의 응답률을 보였고,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건교사 대표단이 직접, 또는 이메일이나 우편수취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 연구자들은 대상자의 충실한 응답여부 및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종플루 확산의 정점, 신종플루업무 내용, 일상 업무 수행의 지장에 대한 대안여부 및 신종플루 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은 빈도와 백분율, t-test를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신종플루 확산전과 확산이후의 직무동기(직무보람, 직업적 자긍심, 직무 능력), 직무소진(직무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부담), 직무관계(학생, 교직원, 학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및 직업 관리(휴직, 이직, 퇴직 고려)는 paired t-test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는 SAS 9.02를 이용하였으며 p 값이 .05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인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39명의 평균연령은 43.9세로 40대가 30.2%, 50대가 36.0%이었다. 보건교사 경력은 평균은 15.6년이었고, 학생규모를 사분위수로 파악할 때 1사분위수인 717명 이하가 26.6%, 4사분위수인 1,301명 이상이 24.5%이었다. 근무학교 지역의 경제수준은 상지역 11%, 상중지역 18.3%, 중지역 24.1%, 중하지역 32.1%, 하지역 14.6%이었다(표 1).

2.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신종플루로 인한 확산의 정점(peak), 업무증가율 및 업무내용

연구대상자가 체감한 신종플루 확산의 정점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응답은 2009년 10월 첫째 주가 0.7%, 두 번째 주 1.4%, 세 번째 주 11.5%, 네 번째 주가 34.5%이었고, 11월 첫째 주 33.1%, 두 번째 주 13.0%, 세 번째 주 1.4%로 10월 네 번째 주와 11월 첫 번째 주가 가장 많았다.

신종플루 확산 정점으로부터 전후 10일간의 업무증가율은 평상시 100%를 제외하고 평균 121%(약 1.2배)가 더 높았고, 하루업무 중 신종플루업무는 평균 77.5%에 달하였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39)

구분	n (%) or M±SD
연령 그룹(세)	43.9±8.6
20대	6 (4.3)
30대	41 (29.5)
40대	42 (30.2)
50대 이상	50 (36.0)
보건교사 경력(년)	15.6±9.3
5년 미만	22 (15.8)
10년 미만	24 (17.3)
20년 미만	42 (30.2)
20년 이상	51 (36.7)
학력	
전문대학 졸업	18 (13.0)
대학 졸업	85 (61.6)
대학원 졸업	35 (25.4)
학생 규모(명)	1,038±465.5
Q1 (≤717)	37 (26.6)
Q2 (≤970)	34 (24.5)
Q3 (≤1,300)	34 (24.5)
Q4 (≥1,301)	34 (24.5)
학급규모(학급)	33.7±12.8
18학급 미만	11 (7.9)
18학급 이상	128 (92.1)
근무학교 지역의 경제수준 ¹⁾	
상	15 (11.0)
상중	25 (18.3)
중	33 (24.1)
중하	44 (32.1)
하	20 (14.6)

주.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임.

1)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지각을 바탕으로 응답함.

다. 또한 보건교사의 연령별, 경력별, 학력별 학생규모별, 경제수준별로 업무증가율과 하루업무 중 신종플루 업무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p>.05$). 한편 신종플루를 단일 업무로 보았을 때 그 세부 업무내용은 문의가 12.7%, 평가가 18.7%, 권고가 10.6%, 도움이 8.6%, 추후관리가 11.0%, 행정처리가 30.8%, 교육이 12.1%로 행정 처리의 업무가 가장 높았다(표 2).

3. 신종플루로 인한 일상 업무수행의 지장 및 대안 여부

신종플루로 인한 일상 업무수행의 지장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에서 95.7%이었고, 있는 경우의 세부 업무를 보면 보건수업이 60.9%, 응급조치 13.5%, 업무폭주로 인한 업무 혼선 9% 이었다. 일상 업무에 대한 대안에서는 없는 경우가 86.1%이었고, 있는 경우는 13.9%이었다. 대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 연기나 외부강사 대치, 보조 인력배치, 초과근무, 업무분담, 보건교육실 설치 등이었다(표 3).

4. 신종플루 확산전과 이후의 직무동기, 직무소진, 직무관계, 직업관리 비교

신종플루로 인한 보건교사의 직무동기, 직무소진, 직무관계의 어려움 및 직업관리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신종플루 확산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각 질문에 대해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고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동기 관련변수 중 직무보람은 확산전은 3.5점이었으나

<표 2> 신종플루정점 전후 업무량과 업무내용

구분	분류	N	M±SD
신종플루의 업무량	평상시 업무 대비 업무증가율 ¹⁾	139	121.0±80.5
	하루업무 중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 비율 ²⁾	139	77.5±18.1
신종플루의 업무내용	문의(문의를 하고, 받는 활동 등)	137	12.7±8.4
	평가(체온측정 등의 활동 등)	138	18.7±11.8
	권고(대상자에 대한 권고 등)	137	10.6±7.9
	도움(진료안내 등의 실질적 도움 등)	135	8.6±5.8
	추후관리(계속 관찰 및 추후관리 등)	137	11.0±9.9
	행정처리(자료집계 및 보고 등)	134	30.8±14.8
	교육(예방교육자료 제작 및 게시, 홍보 등)	133	12.1±9.3

1) 평상시 업무(100%)외에도 신종플루 업무로 인해 121% 증가함을 의미함.

1), 2) 연령별, 보건교사 경력별, 학력별, 학생규모별, 경제수준별로 평균차이가 없음($p>.05$).

확산이후 2.9점, 직업적 자긍심은 3.5점에서 3.2점, 직무 능력은 3.3점에서 2.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직무소진 관련변수 중 직무피로는 확산전 3.1점에서 확산이후 4.9점, 직무스트레스는 확산전 3.1점에서 확산이후 4.9점, 직무부담은 확산전 3.0점에서 확산이후 4.8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직무관계 관련변수 중 학생과의 관계 어려움은 확산전에는 2.2점에서 확산이후 3.6점으로, 교직원과의 관계 어려움도 확산전에는 2.3점에서 확산이후 3.8점, 학부모와의 관계 어려움도 확산전 2.1점에서 확산이후 3.5점으로 높아졌다. 직업관리 변수 중 휴직 고려는 확산전 2.3점에서 확산이후 3.9점,

이직 고려는 확산전 2.2점에서 확산이후 3.5점, 퇴직 고려도 확산전 2.2점에서 확산이후 3.6점으로 증가하였다(표 4).

5. 신종플루 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

신종플루 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은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고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그 결과 보건실 업무의 보조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4.4점이었고, 언론의 보도행태가 4.3점,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4.3점으로 동일하게 높았다(표 5).

<표 3> 일상업무 수행에서의 지장 및 대안 여부

구분	분류	n (%)	
일상 업무 수행의 지장	없음	6 (4.3)	
	있음	세부 업무	133 (95.7)
		보건수업	81 (60.9)
		응급조치	18 (13.5)
		업무폭주로 인한 업무 혼선	12 (9.0)
		기타	22 (16.5)
일상 업무에 대한 대안	없음	118 (86.1)	
	있음	세부내용	19 (13.9)
		교육연기, 외부강사 대치	4 (21.1)
		보조인력배치	6 (31.6)
		초과근무	6 (31.6)
		업무분담	2 (10.5)
		보건교육실 설치	1 (5.3)

<표 4> 신종플루 확산전후의 직무동기, 직무소진, 직무관계, 직업관리 비교

구분	분류	Total (N=139)	평균 점수 ¹⁾		평균차 (확산이후-확산전)	표준오차	t (p)
			확산전	확산이후			
직무동기 관련변수	직무보람	119	3.5	2.9	-0.54	0.14	3.77 (.000)
	직업적 자긍심	119	3.5	3.2	-0.36	0.14	2.45 (.015)
	직무의 능력	119	3.3	2.5	-0.86	0.14	5.86 (<.000)
직무소진 관련변수	직무피로	117	3.1	4.9	1.87	0.07	-26.01 (<.000)
	직무스트레스	119	3.1	4.9	1.83	0.08	-23.88 (<.000)
	직무부담	118	3.0	4.8	1.75	0.09	-20.19 (<.000)
직무관계 관련변수	학생과의 관계 어려움	117	2.2	3.6	1.40	0.12	-19.46 (<.000)
	교직원간의 관계 어려움	117	2.3	3.8	1.41	0.12	-11.66 (<.000)
	학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117	2.1	3.5	1.31	0.11	-11.85 (<.000)
직업관리 변수	직업 휴직 고려	115	2.3	3.9	1.57	0.14	-11.26 (<.000)
	직업 이직 고려	114	2.2	3.5	1.40	0.14	-11.39 (<.000)
	직업 퇴직 고려	114	2.2	3.6	1.52	0.14	-10.34 (<.000)

1) 1점: 매우 적음, 2점: 적음, 3점: 보통, 4점: 많음, 5점 매우 많음.

고찰

학교시설이나 장비, 학교재정 등이 학교조직에 필요한 중요 자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보건인력의 지식과 활동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학교보건을 구성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각기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학교보건의 성과와 조직목표의 달성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학교보건서비스는 학생과 교직원의 적정기능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교사의 지식과 기술 및 활동을 통해 주요하게 전달된다. 보건교사는 다양한 학교보건 인력인 학교의사, 약사, 학교보건행정가 등과 달리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 건강전문가로 건강위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학교보건의 궁극적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중 특히 보건교사의 직무현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보건교사 직무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보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실용연구라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에 다시 있을 수 있는 학교건강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가 체감하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의 정점은 10월 4주째가 34.5%, 11월 첫째 주 33.1%로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경계단계의 끝 지점과 심각단계의 초기단계(보건복지부, 2009)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종플루 확산 정점으로부터 전후 10일간의 업무증가율을 측정하였을 때, 평상시 100% 대

비 약 220% (약 2.2배)로 약 1.2배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건교사의 경력이나, 학력, 학생규모, 지역 경제수준 등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에 차이가 없음으로서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 대부분의 보건교사 업무량은 평상시 보다 매우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평가하고, 건강교육과 건강관리 및 학교보건시설의 유지 발전을 위한 통합적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95.7%의 보건교사가 신종플루로 인한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86.1%의 보건교사가 이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또한 지장이 있는 일상 업무의 내용은 보건수업이 60.9%, 응급조치 13.5%, 업무폭주에 의한 업무 혼선 9% 이었다. 이처럼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에 보건교사는 학생보건서비스, 환경관리 및 보건교육 등의 학교건강증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다시 있을 수 있는 학교건강위기에서는 보건수업과 응급처치에 대한 여러 대안의 모색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루업무 중 신종플루 업무의 비중과 그 내용을 세분하여 보았다. 하루업무 중 신종플루의 업무 비중은 77.5%로 그 중 문의가 12.7%, 평가가 18.7%, 권고가 10.6%, 도움을 주는 행위 8.6%, 추후관리 11.0%, 교육이 12.1%, 행정처리가 30.8%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업무 중 타 전문직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문의, 권고 등의 업무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조직의 콜센터운영 등을 통해 보건교사의

<표 5> 신종플루 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

문제점	N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근거기반의 정보 부족	138	3.2	1.1	6
신뢰할만한 전문가의 부족	136	3.6	1.1	4
교내직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동료)의 협조 부족	138	2.6	1.2	7
교육청 대응체계(공문시달, 지나친 행정업무) 문제	137	4.3	1.0	2
학생의 지나친 불안	139	3.5	1.0	5
학부모의 지나친 불안	138	3.6	1.0	4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행태	138	4.3	1.0	2
보건실 업무 보조인력 부족	137	4.4	1.1	1
기타	8	3.9	1.5	3

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업무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행정업무는 담당기관과 학교 상호간의 잘 조화된 직무 프로토콜과 함께 타 전문직으로의 일시적 권한위임을 통해 감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보람, 직업적 자긍심, 직무능률은 확산전은 3.3점에서 3.5점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나 확산이후는 2.5점에서 3.2점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의 직무관계 어려움은 확산전은 2.1점에서 2.3점의 분포를 보인 반면, 확산이후는 3.5점에서 3.8점의 분포로 증가하였다. 직무만족 저하는 업무생산성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 질 수 있다(최효숙, 2007). 또한 직무 소진은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 아니라(최효숙, 2007), 자신의 건강을 해쳐 결국 이직까지도 고려하게 한다(김희경 등, 2005).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소진을 알기위한 직무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부담이 신종플루 확산전은 3.0점에서 3.1점의 분포를 보였으나 확산이후는 4.8점에서 4.9점의 분포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플로리다에서 신종플루의 유행 동안에 그곳의 보건종사자 2,414명의 업무보고를 보면 신종플루의 위험시기가 낮을 때는 92.3%의 대상자가 기꺼이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높은 위험상황에서는 기꺼이 하는 업무보고율이 56.2%까지 감소하였다(Basta et al., 2009). 이처럼 지나치게 큰 위험시기에 업무소진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행위가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직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조직을 이탈하려는 구성원에 대한 관리, 즉 인적자원의 유지도 매우 중요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직업 휴직, 이직, 퇴직의 고려는 신종플루 확산전은 2.2점에서 2.3점의 분포를 보인 반면, 확산이후는 3.5점에서 3.9점의 분포로 증가하였다. 홍콩에서도 신종플루 대유행동안 지역사회 간호사의 76.9%가 환자를 돌보기를 기꺼이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 스트레스 55%, 감염의 두려움 29.2% 등이었다. 또한 기꺼이 환자를 돌보지 않은 그룹에서 우울증과 정서적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였다(Wong et al., 2010). 그러므로 보건교사에게 학교감염을 피하기 위한 감염조절 훈련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재할 때 학교내 보건서비스 제공이 향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신종플루 위기 동안의 대응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 2인의 경험에 의해 그 내용을 분류 후 제시하였고, 또 나열된 내용 외의 기타 내용은 직접 기술토록 한 후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고 5

점(매우 그렇다)으로 대상자가 응답토록 하였다. 그 결과 보건실 업무의 보조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4.4점이었고, 언론의 보도행태가 4.3점,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4.3점으로 동일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지나친 업무의 양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과, 언론의 보도행태가 학교건강위기 동안의 직무에 미친 영향, 또 교육청 대응방식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추후연구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교사들은 그 어느 직종보다 신종플루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위험그룹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보건교사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시의 1,215개 초등학교 중 12.3%에 해당하는 139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보건교사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 확산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보건교사 직무현황을 파악하였고, 또 보건교사가 제시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보건교사의 직무현황과 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초등학교 보건교사 139명이었다.

연구결과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보건교사의 업무증가율은 121%이었으며, 하루업무중 신종플루의 업무비율은 77.5%에 달하였다. 특히 신종플루의 업무중 행정처리 업무가 30.8%로 가장 많았고, 체온측정등의 학생건강평가가 18.7%로 높았다. 또 이렇게 증가된 신종플루 업무로 인해 일상업무 수행의 지장은 95.7%,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는 86.1%이었다. 특히 보건수업의 지장은 60.9%나 됨으로 보건교육의 손실이 가장 우려됨을 알 수 있었다.

신종플루 확산이후 보건교사의 직무동기(1~5점)는 확산전과 평균을 비교할 때 평균 0.4에서 0.9점까지 감소, 직무소진(1~5점)은 확산전보다 평균 1.8점에서 1.9점까지 증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의 관계 어려움(1~5점)은 확산전보다 평균 1.3점에서 1.5점까지 증가, 직업휴직, 이직, 퇴직고려(1~5점)는 확산전보다 평균 1.4점에서 1.6점까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량은 매우 많았다. 또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 또한 부족하였다. 이러한 직무현황에서 보건교사

의 직무만족은 감소하고 직무소진 및 학생, 교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다시 있을 수 있는 학교건강위기 시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직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청의 대응체계 개선, 행정업무의 단순화나 분산, 단순문의나 권고 등의 업무에 대한 한시적인 콜센터 가동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우주 (2009 a). 대유행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역학, 임상 소견 및 치료. **대한내과학회지**, 77(2), 157-164.

김우주 (2009 b).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의 전망과 대책. **대한내과학회지**, 77(2), 139-142.

김희경, 지현순, 류은경, 이현주, 연승은, 전미경, 김희정 (2005).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 **임상간호연구**, 10(2), 7-18.

보건복지부 (2009).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Online]. Available: [http://www.moh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BOARD_ID=140&BOARD_FLAG=&CONT_SEQ=229836&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2009. Nov 31\]](http://www.moh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BOARD_ID=140&BOARD_FLAG=&CONT_SEQ=229836&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2009. Nov 31])

서울신문 (2009). [신종플루 초기상] 학교 · 당국 · 학부모 쉬쉬하다 “터질 게 터졌다” [Online]. Available: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28004009>[2009, OCT 28]

세계여행신문 (2009). 언론에 놀아난 신종플루, “CNN 27건 VS KBS

849건” 보도 [Online]. Available: <http://www.gtn.co.kr/readNews.asp?Num=38791> [2009, SEP 14]

이만우, 허종호 (2009). 신종플루의 확산 양상과 대응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Online]. Available: <http://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6&seq=985&mncode=20090317113502> [2010, Apr 28]

정희진(2009), 의료인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제6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S963-S966.

질병관리본부 (2010). 급등하던 신종플루 증가세 주춤 -100% 이상씩 증가하던 의사환자(ILI) 분율이 7.7%로 나타나- [Online]. Available: <http://flu.cdc.go.kr/>[2010, NOV 14]

최효숙 (2007). 보건간호사의 소진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주.

Basta, N. E., Edwards, S. E., & Schulte, J. (2009). Assessing public health department employees' willingness to report to work during an influenza pandemic. *J Public Health Manag Pract*, 15(5), 375-383.

Wong, E. L., Wong, S. Y., Kung, K., Cheung, A. W., Gao, T. T., & Griffiths, S. (2010) Will the community nurse continue to function during H1N1 influenza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of Hong Kong community nurses?. *BMC Health Serv Res*, 30(10), 107. [Online]. Available: <http://www.biomedcentral.com/1472-6963/10/107>[2010, May 2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Pandemic(H1N1)* [Online]. Available: http://www.who.int/csr/don/2009_10_02/en/index.html [2009, OCT 27]